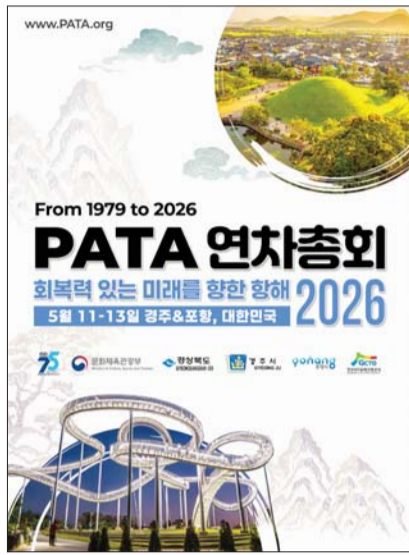


경북도 'PATA 연차총회'... 지역 연계 국제회의 모델 제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내일까지 포항·경주 일원서 진행
APEC 이후 성과 지속·확대 노력
지역 마이스 산업·관광 활성화 기여



PATA 연차총회 포스터.

경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 포항시, 경주시와 함께 11일부터 13일까지 포항·경주 일원에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는 195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 관광기구다. 국내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주요 관광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개최 이전부터 성과를 지속·확대하기 위해 PATA 연차총회 유치에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여섯 번째로 연차총회 유치가 성공했으며, PATA 연차총회 최초로 포항·경주 두 도시 공동 개최를 성사시켰다.

도는 이번 공동 개최가 수도권 단일 도시 중심 국제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연계형 국제회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총회에는 국내외 관광 관련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업계 종사자 등 35개국 500여 명이 참석해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여정(Navigating Towards a Resilient Future)'을 주제로 글로벌 관광 산업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11일에는 포항 라한호텔에서 청년 심포지엄과 교육·산업 라운드테이블, 개회식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정책 포럼과 지부회의, 컨퍼런스 등이 이어진다.

특히 둘째 날 저녁에는 APEC 경제 전시장과 경주타워 일원에서 갈라디너와 전통공연, 대한민국명장 한복패션쇼 등을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마지막 날에는 컨퍼런스와 주제별 살롱 세션이 이어지며 폐회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북 관광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경주·안동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과 포항 환호공원 식물원, 스페이스워크 체험은 물론 APEC 정상과 고위 인

사들의 동선을 따라가는 특별 관광코스도 마련된다.

경북도는 국제회의의 참가자들이 잠재적인 인바운드 관광객이자 효과적인 홍보 채널이 될 것으로 보고, 도내 역사문화자원과 해양·도시경관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이번 총회를 포스트 APEC 관광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고 프로그램 구성과 초청, 수송, 숙박, 운영인력, 부대 시설 조정 등 행사 전반 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이어 2026 PATA 연차총회 개최는 경북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요 국제회의의 유치를 힘써 지역 마이스 산업과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포항시 '로컬 브릿지 지원사업'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

'지역특화 청년 사업' 공모 선정
지역 자원 활용 체류형 프로그램

포항시가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특화 청년 사업' 공모에 선정돼 '로컬 브릿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포항의 해안과 숲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관계를 형성하고, 향후 정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구조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는 청년기획단 '브릿지 메이커스'는 오는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이디어 제안과 현장답사,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프로그램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브릿지 메이커스의 기획과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북 청년 대상 트레킹 프로그램 '해파랑 원정대' ▲지역 대학생 특화 해양레저 프로그램 '액티비 원정대' ▲정책 거버넌스와 네트워킹을 결합한 '웨이브 캠프' 등이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참여 대상을 포항 청년에서 경북 청년까지 확대하고, 경북도 청년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광역 단위 청년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포항의 로컬 자원을 청년들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망 형성을 지원해 포항을 중심으로 한 '포항형 관계 인구' 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영덕군, 괴시리 전통마을 열린관광 확대

보행 환경·안내 체계 정비

영덕군은 '2024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괴시리 전통마을 일대의 무장애 관광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동 취약계층도 안전하게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과 안내 체계를 정비한 사업이다.

마을 입구와 주요 관람 구간에는 황토콘크리트 보행로가 조성됐다. 기존 비포장 길과 단차 구간을 개선해 휠체어와 유모차 이동 부담을 줄였다. 일부 경사 구간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했고 장애인 주차장에는 경사로를 마련했다.

영덕군은 전통 경관 보존에도 중점을 뒀다. 한옥 구조와 담장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동 동선을 정비해 괴시리 특유의 분위기를 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광 정보 접근 체계도 강화됐다. 시



영덕군 괴시리 전통마을 항공 전경. 고택과 한옥 지붕이 마을 전체를 따라 이어지며 전통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점용 팸플릿을 제작했고 마을 곳곳에는 촉지음성 안내판과 촉각 안내판을 설치했다. 점자와 음성 인식 기능을 함께 적용해 문화유산과 마을 역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신경주역세권 내 공원·녹지 관리 강화

경주시, 2억4800만원 투입

경주시가 신경주역세권 내 공원과 녹지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사업에 본격 나선다.

이번 사업은 KTX·SRT 경주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신경주역세권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지는 건천읍 화천리 2699-3번지 일원으로, 시는 총사업비 2억4800만원 전액을 시비로 투입해 올해 말까지 공원·녹지 7만629㎡를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 면적은 ▲역사공원 1만2322㎡

▲근린공원 7982㎡ ▲소공원 809㎡ ▲녹지대 4만9516㎡ 등이다.

경주시는 예초와 잡초 제거 등 잔디관리를 비롯해 공원 내 수목 및 가로수 관수 작업, 계류시설 세척·정비, 노후 데크시설 도색 등을 추진한다.

특히 KTX·SRT 경주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신경주역세권이 경주의 신성장 거점 역할을 하는 만큼,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가 도시 이미지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단순 환경정비 수준을 넘어 생활밀착형 녹지 관리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주(경북)=김준한 기자

GIST, 화재 위험 낮춘 전고체전지 개발

이온으로 계면 보호막 만들어

전고체전지 내부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보호막을 만들어 화재 위험은 낮추고 수명은 늘릴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개발됐다.

9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따르면 기술원 김상륜 교수 연구팀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일본 교토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소를 포함한 특수 이온(BH4-)이 전고체전지 내부에서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보호층을 형성하는 원리를 규명했다.

연구팀은 이온이 계면 보호막을 만들면서도 리튬 이온 이동은 원활하게 유지해 배터리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화학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고체전해질에 BH4- 이온을 도입한 뒤 X선 광전자 분광법(XPS)과 비행시간이차이온 질량분석법(TOF-SIMS) 등을 활용해 충·방전 과정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BH4- 이온이 충·방전 초기 단계에서 리튬 금속과 먼저 반응해 안정적인 보호층을 형성하고, 이후 전해질과 리튬 금속 간 직접 반응을 줄여 계면 구조를 안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전류 조건에서 1000회 이상 충·방전을 반복한 실험에서도 충·방전 효율이 10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해 장기 안정성도 입증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전고체전지의 수명 향상은 물론 발열과 화재 위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지역 이모저모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 변화과정 조명 기획전

광주도심의 발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린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12일부터 8월9일까지 광주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기획전 '광주, 도시가 되어 온 시간'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1896년 광주가 전남도청 소재지로 지정된 지 130주년,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광주지역의 주요 도로와 건물, 하천, 주거지 변천사를 사진·지도·엽서·기록물 등을 통해 보여준다. /광주=양수영 기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e스포츠팀 'GC부산' 재창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e스포츠 지역 연고팀인 'GC부산'을 재창단한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활동 중단 이후 5년만의 복귀다. 팀에는 서정(SeoEunSeol), 한준희(Romantic) 등 베테랑과 박민우(Hare), 주준영(Nizika) 등 유망주가 합류했다.

GC부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한민국e스포츠 리그'(2026KEL)에 참가해 복귀전을 치른다.

GC부산은 전국 19개 지역 팀이 참가하는 2026KEL에서도 총상금 1억5000만원 중 가장 큰 상금(1억원)이 배정된 '이터널 리턴'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다. 개막전은 22일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김해시

오는 16일 수릉원 '연등축제'

김해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16일 수릉원 일대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연등축제는 전문예술단체 가야의 혼 봉축음악회를 시작으로 초청가수 천록담 최지혜의 무대가 진행된다.

이어 부처님 탄생일을 기리는 봉축법요식으로 육법공양,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봉행사가 이어진다.

또 형형색색 연등이 거리를 밝히는 제등행렬은 수릉원을 출발해 시민의 종까지 이동한 뒤 점등답을 돌아 다시 수릉원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김해=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양군

'산나물축제' 60억 경제효과

영양군의 대표 축제인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가 4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년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는 '자연이 차려낸 봄의 미식 한 상'을 테마로 진행됐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총 12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약 6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축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